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3호 [루게 제25326호] 주체105(2016)년 7월 1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30일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카스
트로 루스동지의 특
사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
바공화국 국가리사
회 부위원장인 알바
도르 안토니오 발데
스 메싸동지와 일행
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쿠바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1비서
특사일행과 상봉하
시고 따뜻한 담화
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쿠바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1비서 특
사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
하시면서 이번 방문은 조선과 쿠바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에서 중요한 계기
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쿠바공산
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
으며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가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로 다시 선
거된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알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동지가 쿠바공산
당 제7차대회 진행정황을 조선로동당에
상세히 통보해주어 우리는 쿠바공산당
이 중시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와
반제사회주의위업의 가치를 변함없이



동지와 라울 카스
트로 루스동지와 함께
마련하여주시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
계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
의 각별한 관심속에
공고발전되고있다
고 하면서 쿠바와 조
선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
시키는것은 쿠바당
과 정부의 확고부동
한 방침이라고 말하
였다.

그는 쿠바공산당
제7차대회에서 쿠
바가 사회주의를 절
대로 포기하지 않
으며 사회주의를 지
속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쿠바
혁명을 전동적으로
, 역사적으로 지지해
온 조선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과의
연대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의
지가 다시한번 강
조되었다고 말하
였다.

시중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담
화에서는 조선로동
당과 쿠바공산당
의 공동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
들과 두 당, 두 나
라에서의 당활동
과 사회주의건설
에서 이룩된 성과
와 경험들이 호
상 통보되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
들이 진지하게 교
환되었으며 모든
문제들에서 견
해를 같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성의
껏 마련하여 보내
온 선물을 알바도
르 안토니오 발데
스 메싸동지가 드
리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들고나가려는 쿠
바당과 정부, 인
민의 의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쿠
바공산당 제7
차대회는 쿠바
공산당의 령도
적역할을 강화
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
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쿠
바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쿠바당과
인민에게 전
투적인사와
뜨거운 포용
을 보내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
선과 쿠바는 지
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한전

호속에서 싸우고
있으며 쿠바당
과 정부, 인
민의 결에는
항상 조선로
동당과 정부,
인민이 서있
다고 하시
면서 조선과
쿠바 두 당,
두 나라사이
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
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
라는 확신을
표명하시
였다.

알바도르 안토
니오 발데스
메싸동지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애
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
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라울 카스
트로 루스
동지의 따
뜻한 인사
를 전하여
드리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께서 사회
주의강국
건설을 위
한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
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
일정에 대하여
깊이 관심해
주시고 오늘
은 귀중한
시간을 내
시어 접견
해주신데
대해 감사
를 드리
였다.

그는 조선인
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
지와 김
정일동지
의 혁명위
업을 가장
빛나게 계
승해나가는
존경하는
김정은동
지께서
조선로동
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로동
당 위원장
으로 높이
추대되
신것을 열
렬히 축하
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
의 따듯한
인사를 직
접 전하여
드리게 된
것을 커다
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
지와 김
정일동지
께서 피델
카스트로
루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쿠
바공산당 제7
차대회는 쿠바
공산당의 령도
적역할을 강화
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
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쿠
바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쿠바당과
인민에게 전
투적인사와
뜨거운 포용
을 보내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
선과 쿠바는 지
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한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쿠
바공산당 제7
차대회는 쿠바
공산당의 령도
적역할을 강화
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
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쿠
바의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쿠바당과
인민에게 전
투적인사와
뜨거운 포용
을 보내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
선과 쿠바는 지
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한전



온 나라가 크나큰 격정과 환희, 무한한 감격과 기쁨으로 새차게 물들어버렸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전출위원을 진두에 모시어 감격하고 번영하는 공화국의 공민된 공지와 자부심이 배태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집결관현을 위한 총동원전, 총동원전을 벌려나가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정일은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고 민족적경사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데서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므로써 우리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봉고발전시키고 인민의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있으며 원수님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싹떡이며 우리의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장광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는 영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영도자의 위대성이자 국력이요 민족의 존엄이며 번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전체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흥모와 절대적인 신뢰심의 발현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새로운 주체100년대 진입에 들어선 때로부터 5년 가까이 흘려왔다. 이 나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임상이 온 누리에 힘있게 파시되고 원수님과 우리 군대와 인민사이의 혈연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영도자로서의 위대한 혁명실력으로 우리 공화국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선제적인 사상리론가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비범한 전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에서 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더욱 강화되고 우리 혁명의 천하제일강국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는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역사의 한순간이라고 할수 없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날마다 수십, 수백만이 절망도 이루지 못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려신분이 바로 우리의 영도하는 김정은동지이다.

영도자에 대한 배후와 신뢰는 강요할수도 없고 지어낼수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결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도 누릴수 없는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으며 원수님의 두리에 천금만첩의 성새로 굳게 붙었다. 이번이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황도적 피겨로 한 폭죽같은 《만세!》의 환호성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온건과 심상, 운망과 미래를 통째로 맡기고서 원수님을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전체 대의원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성의 일편단심의 분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천만군민의 드뭇한 의지의 힘있는 파시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위대한 수명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위대한 수명님들의 한결같은 고귀한 유산인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엄으로 빛내이고 수명님들의 유산을 끝까지 실현하여 이 땅위에 인민의 천하제일강국

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주체혁명의 만민대제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용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살계도가 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명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방에 빛내이며 우리 조국을 인민의 확연으로 일떠세울 령도를 확신있게 내다보며 필승의 신심과 확신에 충신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지성을 모으는 정열을 지니시고 불타는 불류의 천지지도강령관경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에서 의하여 우리 조국에서는 승리와 기적창조의 위대한 전진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조국을 주체의 우주강국, 자주의 핵강국으로 빛내이고 이 땅 위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번모이는 만리마시대를 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실천력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경제강국,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재일을 보고있다.

우리앞에 그 어떤 시련과 풍파가 닥쳐오고 아무리 이롭고 방대한 과업이 나시오 경애하는 원수님도 결코 굴하지 않고 승리한다는것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억세게 뿌리내린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에 오르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영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어떤 어려움 환경과 조건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더욱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금만첩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전체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천금만첩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전체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천금만첩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모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조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을 깊이 세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떨쳐지고 우리 인민의 이름다운 꿈과 이상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주체이다. 우리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폭음으로 사수하는 성새, 방패가 되어야 하며 전당, 전군,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영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어떤 어려움 환경과 조건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더욱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모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금만첩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전체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천금만첩의 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

모든 인민군정병들과 인민들은 우리 조국을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을 깊이 세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만방에 떨쳐지고 우리 인민의 이름다운 꿈과 이상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주체이다. 우리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폭음으로 사수하는 성새, 방패가 되어야 하며 전당, 전군, 온 사회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오늘 우리앞에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이다. 우리는 영도의 령도따라 국력이 강고 끝없이 번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일 데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혁명적투쟁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에서는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번영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온갖 교양과 법적정신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열사들의 투쟁정신을 힘있게 발휘하여 자기부담, 자기단위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만리마작업단, 만리마작장, 만리마농장들이 창조창출되고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념으로 혁명투쟁, 국방력의 강화에 더욱 굳게 붙어 대담한 공격전, 전진적인 결사전을 벌려 당 제7차대회 결정명령을 위한 200일전투에서 주체조선의 영웅화장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위한 단계적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워주고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들은 인민들의 작전과 농작업 지휘로 자기부담, 자기단위에서 대혁신, 대비약에 이룩해나감으로써 혁명의 지휘선으로서의 책임과 분수를 다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휘황찬란하다.

모든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동같이 맹목 공화국의 존엄과 필승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휘황찬란하다.

모든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동같이 맹목 공화국의 존엄과 필승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가자.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쏟으시고 하신 말씀과 조선대학창립 60돐에 즈음하여 보내 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전조직과 모든 동료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사상을 구현한 동포제일주의의우를 높이 들고 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동포들끼리 밀사복합으로써 흥원조직을 동포들이 중심으로 밀고 사랑하며 의탁하는 조직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 따라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대포를 여는 데 특색있게 이바지하고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적극 기여하며 일민인민들과의 단결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벌려겠습니다.

그러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지를 높이 들고 자강적민주정신으로 총동원전을 벌리는 조국인민들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감동적인 시한을 이김없이 관철하여 위대한 수명님들의 불속에서 성장한 흥원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신념과 배려에 응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념원은 조선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이며 승리의 상징이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일입니다.

우리들은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흥원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민족의 지향하여 새 건설기 애국애국보방정조준봉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감으로써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의데로 지부와 현수, 단세기총조직들을 애국애국의 믿음직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 참가자일동

주제105(2016)년 6월 27일 일본 도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쏟으시고 하신 말씀과 조선대학창립 60돐에 즈음하여 보내 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전조직과 모든 동료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사상을 구현한 동포제일주의의우를 높이 들고 동포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동포들끼리 밀사복합으로써 흥원조직을 동포들이 중심으로 밀고 사랑하며 의탁하는 조직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 따라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대포를 여는 데 특색있게 이바지하고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적극 기여하며 일민인민들과의 단결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벌려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배 이 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 근 평 동 지

나는 중국공산당장전 9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귀 당의 전체 당원들과 중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중국공산당은 장구한 기간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영도하여 사회주의 새 중국을 일떠세웠습니다.

오늘 중국공산당은 당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성을 유지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조부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밑에 중국인민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함께 오랜 력사적부름을 가지고있는 조중친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하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중국공산당의 영도밑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번영하고 중국인민이 행복할것을 축원합니다.

김 정 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에서 명예메달을 수여해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에서 줄리어스 캄바라위 니 에베레 범아프리카명예메달을 수여해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명예메달과 중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6월 22일 캄팔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행사장정면에서 모셔져있었다.

행사에는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와 우간다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청년 및 현대성년제인사들과 성원들 그리고 우간다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투카라리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의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휘황한 진로를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총련의 200일 전투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용을 창조하고있으며 흥원인민군들과 재일동포들도 조국인민들과 습결과 복복을 같이하여 《기총조직들을 애국애국의 믿음직한 성들로 굳건히 다지기 위한 지구경쟁》에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는 불꽃은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을 제일조선인운동에 구현하기 위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위원회 제23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를 가지였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교포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축복속에 당 제7차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최상위대의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감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회의 개최에서 위대한 수명님들을 높이 모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무한한 혁명열정과 함께 한덕수용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더없는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흥원축하단 단장이 흥원중앙상임위원회의 축하문을 선함으로 향복하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흥원중앙상임위원회의 축하문을 받으시면서 우리 당은 흥원과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고있으며 언제나 흥원과 함께 있다는 천금만첩같은 마음을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명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이 세상의 모든 온정을 다 돌려주시어 재일동포들의 삶과 미래를 결속점을 보살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과 믿음을 우리들은 영원히 잊지 않으며 대를 이어 길이길이 전해갈것입니다.

우리들은 본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영예드높이 흥원대의 일심단결과 동포제일주의로 그 어떤 난국도 파고쳐 뚫고 애국애국운동에서 새

본서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하르툼 수단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각하

나는 수단혁명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 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5(2016)년 6월 30일 평 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브라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6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브라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만나 담화를 하였다.

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여기에는 신홍철 외무성 부장의 6월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 파 브라질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본서기자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쏟으시고 하신 말씀과 조선대학창립 60돐에 즈음하여 보내 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전조직과 모든 동료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겠습니다.

200일전투의 한달이 흘렀다, 만리마속도로 계속 질풍같이 앞으로!

자력자강으로 200일전투의 첫달목표 돌파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

총칭의 200일전투의 불길 높여 역사적인 당 제 7차대회 파업전투를 위한 투쟁에 신약같이 펼쳐나선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대고조적전투마다에서 자력한 승전포수를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올리고있다.

총합된 자력으로 의하면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봉부문에서 자력자강의 만리마속도로 높이 세운 200일전투 첫달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명하는데 이어 6월 30일현재 주제비료, 비닐론, 통나무, 마그네사이트 등 주요공업지표들의 6월전투목표가 빛나게 완수되는 자력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삼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력기하여 새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총칭의 200일전투에서 부른 당의 전투지시령을 피하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대혁신, 대비약의 만리마속도로 조로 휘달리며 전진의 돌파구를 앞장서서 힘차게 열어제끼었다.

러친장발전소, 남강발전소, 화력발전소와 어항발전소, 장전발전소 등 각기 수력발전소들에서 물을 최대한 호파적으로 리용하여 높은 효율을 얻어내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으며 특히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때부산 영웅청년발전소에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전력이 생산되였다.

북강화력발전소와 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와 청천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생산공정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선을 이끄는 등 전진노력을 높여 이렇듯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여 순시전력으로 6월 화력발전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하였다.

우리 당의 광활한 공력전선과 자강력제일주의의 본분히 주장한 순천지구청년화력발전소와 덕천지구청년화력발전소, 북강, 개천지구청년화력발전소의 한부하들이 수천억 리터의 물을 마다에서 새겨, 새겨 물을 끓여내어 창조하여 자력한 전력으로 생산을 편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올림으로써 6월전투목표를 완수하는 혁신을 일으키었다.

특징, 금속, 경철지구의 판방들에서도 안출된 재탄방향을 받아들여 합선과 결연을 앞세워 확보탄량을 더 많이 조성하였다.

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다. 당정책적사용위를 제정화한 우리의 더러운 선봉부문 노동계급이 자력자강의 만리마속도로 장조로 지퍼올린 불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면대혁명의 불길로 새겨져 타올라 아침과 저녁, 시간과 분이 다르게 새로운 기적과 눈부신 위훈들이 창조되었다.

당의 뜻에서 지역자강의 무사들로 인해서 성장한 남흥청년화력발전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생산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보강하고 생산능력을 부단히 확장하여 밤낮이 따로 없이 불타는 증산전투를 치열하게 벌려 6월 주제비료와 비닐론생산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상선세멘트련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생산자들은 200일전투의 불길높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6월에만도 련명거리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에 계획된 방의 세멘트를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여 장승평의 찬란한 메일을 앞당겨오는 장엄한 대건설전투를 다그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적사용을 힘있게 실천한 인민군들과 노동자들이 산란마다에 승리의 불을기를 켜

대화학공업기지에 내려치는 혁신의 기상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총칭의 200일전투 첫시작부터 총공격력을 끌어내어 6월 비날론과 염화비닐생산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하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가스소다와 카바이드, 염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계획도 110%로 넘쳐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생산설비와 계통을 제때에 정비보강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축대의 과학화, 실용화, 주체비료와 비닐론, 기초화학제품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명도하시는 그처럼 비스듬히 속에서도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진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연구주도하시려는 위대한 뜻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할 불타는 마음안고 총칭의 200일전투에 총력기여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하루하루를 총성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당적

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과학원 함흥분원과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도의 여러 단위 과학자, 교원, 연구사들을 련합기업소에 파견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축대의 국산화를 실현하며 원료, 자재의 원단위소비비를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총력적으로 벌리고있다. 혁명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장, 일군들을 비롯한 기업소의 직장, 작업반들을 맡고나가 결연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는 사업을 총이 크게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화학공업부의 적극적인 지도방식으로 련합기업소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총칭의 70일전투기간 비사히 양심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생산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원료, 연료, 자재보장을 위하여 기관차를 타고 탄방, 탄산으로 달려가고있으며 여러 생산공정들에 대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비날론과 기초화학제품생산의 돌파구를 앞당겨 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200일전투를 시작하면서 원료직장의 1호식회로와 카바이드2직장의 4호로에 또 불을 지퍼 석회로와 카바이드직장의 가동대수를 더 늘였다. 생산의 첫

철도화차용수지체동구두 개발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 철도차량연구소에서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 철도차량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평양성형법에 의한 철도화차용수지체동구두를 개발하여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노동계급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수지체동구두는 지난 시기에 많이 쓰이던 주철체동구두에 비하여 가볍고 수명이 길며 마찰계수가 작고 마찰 크기에 변화가 없는 우점으로 하여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일반적으로 수지체동구두는 원료들을 혼합하여 열처리하고 높은 온도에서 압성형하는 열압성형법으로 생산하였다.

철도차량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러한 열압성형법을 좀더 발전시키고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국산화된 수지체동구두를 상온에서 압성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물고기처럼 내밀어 새로운 방법인 평압성형법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열압성형법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매우 적었지만 사용과정

만리마속도로 창조하며 기세충천하게 전진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살림집골조공사 85%계선 돌파

총칭의 200일전투의 첫 달동안 련명거리건설장에서 세 인을 놀려주는 기적적성과들이 다발적, 편발적으로 일어났다.

해당 부문에 총합된 자력으로 의하면 6월 30일까지 련명거리건설장에서도 살림집골조공사량은 85%, 내외부벽장은 33%계선을 돌파하고 3600여 세대의 살림집골조가 형성되는 눈부신 성과가 이루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발한 창조물들을 많이 일출케하면 그만큼 강성국가 건설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전진이 출렁이 피날래기 됩니다.》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강국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으로 꿰뚫고 배부른 혁명군인의 본래와 기질을 남김없이 펼치고있다.

6월 21일과 28일에 군인건설자들은 대상 53-2호동 25층살림집과 모란 55-58호동 40층살림집골조공사를 끝냄으로써 200일전투에 돌입한 다층, 고층살림집골조공사를 전부 결속하였다. 이것은 총칭의 200일전투에 돌입한 8일과 9일 4동의 다층 고층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낸 때부터 거의 매일이다싶이 한층의 살림집

살림집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도 지난 28일 골조공사를 끝내는 자력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련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배부른 혁명군인의 본래와 기질이 이곳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파간한 전진전, 립계전을 적극 배합하면서 불과 수심일만에 40층살림집골조를 완성하고야말았다.

모란 55-58호동 40층

를 비롯한 수많은 시공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군인들의 단숨에의 기상을 본받아 많은 대건설장마다에서 시건마다, 날마다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지난 27일 대상 52-110호동 20층살림집골조공사를 결속한 의고산시공단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내외부벽장전투에서도 혁신의 불길을 일으키었다. 속도건설전투를 대대적으로 벌려나가고있는 대건설자들도 대상 56-107호

동 18층살림집, 대상 56-108호동 12층, 14층, 18층 살림집골조공사에서 련이 승전의 포성을 힘있게 울리었다.

려명거리건설장에 휘몰아치는 비약의 폭풍은 사회주의강국, 평명국건설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달달음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는 원동력으로, 밀기름으로 되어 천만군인의 가슴마다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도보단



영광의 땅에 새로운 비약의 기상

대흥청년 영웅광산 일군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당이 인준한 영웅광산의 명예를 지어 200일전투에서도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 돌격전을 앞둔 시각 무학분광산 건설자의 광부들은 열의에 넘쳤다.

《우리 소대에서는 200일전투계획의 2배를 해내겠습니다.》

《울습니다. 우리 한테야 100만 광석광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있습니다.》

100만 광석광, 그것은 70일전투기간에 무학분광산 노동계급이 헌신적으로 생산해낸 것으로 결사의 의지로 1070m의 환한선운안정도를 건설하여 마려늘은 대형제광장이었다.

무학분광산 전진전투 광부들이 혁신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었다. 이들은 첫날부터 대형제광장의 한계 마루를 꼭 메어달아 기세충천하여 밀고나갔다. 그러나 자연파의 무정인 광석생산은 열의만큼 비약듯이 순조롭게 없었다. 한동안 잘 나갔던 전진전투가 결이 2미터의 의지로 1070m의 환한선운안정도를 건설하여 마려늘은 대형제광장이었다.

무학분광산 전진전투 광부들이 혁신의 불꽃을 높이 추켜들었다. 이들은 첫날부터 대형제광장의 한계 마루를 꼭 메어달아 기세충천하여 밀고나갔다. 그러나 자연파의 무정인 광석생산은 열의만큼 비약듯이 순조롭게 없었다. 한동안 잘 나갔던 전진전투가 결이 2미터의 의지로 1070m의 환한선운안정도를 건설하여 마려늘은 대형제광장이었다.

영광의 땅에 새로운 비약의 기상

대흥청년 영웅광산 일군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가대들 1.5배로 높아졌고 그 성과가 다른 광동으로 급속히 증가된다는 속세 혁신의 소대에서도 매일 계획보다 1.2배 이상의 임팩을 얻었다. 새로운 분리지방과방법을 받아들여는 파병에 분광산의 광부소대들에서 기술지표들이 경진되고 결전실적은 200일전투 첫달에 1.5배이상으로 뛰어올랐다. 광산의 광석생산에서 단 한 달동안에 불리한 막강건설전에서도 수백m의 임팩을 밀어낸 것은 처음 보는 새 기록이었다.

영웅광산의 명예를 자기들의 생명처럼 간직하고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승리의 직선으로 따라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창조조건도 전진방식도 영웅광산답게!

우창한 수로로물이 기를 쫓고 마그네사이트광분광성이 증산업으로 높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결실치 못하여 여러가지 마그네사이트광이 생산되나오는 이력 분광산의 한복판에서 무학분광산의 광부들이 용솟음치고 비상한 각오를 안고 200일전투에 펼쳐나선 로동계급의 총합된 기세를 한눈에 느낄수 있다. 영웅광산로동계급의 창조본

대흥청년 영웅광산 일군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이러한 광산에서는 크롬과 금의 비록스화를 실현하면서 국내원료를 알만정제도를 해결하였다. 그런데 그 원료보장조건이 어려웠다.

어느날 일군들이 모인 회의에서 지대인은 그루를 띠아 말했다.

《알란에 의한 크롬과생산을 늘일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천관철하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알만정제도의 국산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알만정제도의 국산화기초를 새롭게 내세웠다. 철질원료를 국내에서 찾아내되 그 보장조건이 유리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수시 리파대학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정제연구가 진행되었다. 공작책임일군들이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밀어주었고 원료비율을 개조해야 할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주저없이 말뚫고나갔다.

그러나 연구사업에서는 여러 차례의 실패가 뒤따랐다. 그때마다 광산일군들은 알만정제도의 국산화실현이 단순한 과학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완벽하게 관철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상전이라는 판결을

